

포근한 포천의 향수 '옛보기'

포천예술인동호회 이석구 회장 고희기념 문집 <포천의 향수> 발간

말이다./배꼽 쥐어짜고 그렇게/웃을 일 있는가 말이다./조금 뒤 잇을 것을 말이다.

눈알을 부리리며 그렇게/화 날 일 있는가 말이다./얼마 뒤 잇을 것을 말이다.

입에다 거품을 물고 그렇게/싸울 일 있는가 말이다./내일이면 잇을 것을 말이다.

-<포천의 향수>의 시 '말이다' 중

포천예술인동호회 이석구(69) 회장이 고희기념문집 <포천의 향수>를 발간했다.

이번 문집에는 그동안 이 회장이

이 발표했던 비문, 축시, 축간사 등 30여편과 시 26편, 수필 2편 등이 실려, 행간 하나하나에서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온 이 회장의 면면을 엿볼 수 있다.

이 회장은 "책을 엮으며"라는 서문을 통해 "글을 생산하는 것은 내 생각의 일단이며 삶의 축적"이라며 "몸의 분신쯤으로 흠어진 조각들을 모아 내 곁에 같이 살게 하자는 가부장적 애착이 문집이란 이름으로 엮어지게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포천향교 최종규 전교의 축사에서 "이 회장의 예명이 왕방산에 나는 풀이라는 왕방초이지만 나는 그를 왕방산의 산삼처럼 모시고 싶다"며 "포천의 문화예술 발전에 최선을 다한 그는 포천의 가장 보배로운 존재"라고 발간을 축하했다.

이 회장은 서울에서 태어나 경기대와 방통대를 졸업하고 외북초에서 교직생활을 시작해 포천초 교사를 거쳐 공평초·신북초 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翰林會(퇴직교장단) 회장, 포천예총 고문 등으로 활동중이다.

한편, 지난 17일 유림회관 4층에서는 <포천의 향수> 발간을 축하하기 위한 '이석구 선생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최종규



전교의 축사·손진홍 포천문화사 랑지편집위원의 헌시 낭독과 기념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포천문화원 사무국장 4월24일까지 공모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2004년 5월부터 오는 2006년 6월 30일 임기 사무국장을 공개 모집한다.

응모자격은 공고일 현재(4월17일) 포천시 관내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포천시 관내에 10년이상 거주하였던 자로 관련분야의 전문 자격조건을 갖추면 된다.

전문 자격조건은 인문, 역사, 문화일반, 교육 등 관련 전공자를 우대하고 교사, 학예사 등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며 지역문화 발전에 소명 의식을 가진 자이면 된다.

포천문화원 사무국장은 연봉 2천만원에 신분이 보장되며 사회보

험 및 각종 연금 가입과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응시원서1부, 자기소개서 1부, 학력증명서 1부, 활동실적증명서 1부, 지방문화원에 대한 소견 피력 및 향후 지방문화원 운영계획 1부, 자격증 및 학위증명서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응모신청은 4월17일부터 24일까지 포천문화원에서 접수하며 면접일자는 개별통보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문화원(031-532-5015, 532-505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복기자 best114@hite.net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95)



포천의 산성(山城)

정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순조의 세자 익종의 태(胎)를 안치하여 태봉산 성지라 이름하였는데 높이가 2.5m, 둘레 1~2km이다.

보가산성은 자연석을 이용하여 축조된 고대산성으로 신라때까지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천연적인 방어선인 한탄강이 흐르고 있다. 산성은 70m 가량 남아 있다.

고모루산성은 고구려의 남진 과정에서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고모루성은 광개토태왕비에 나오는 고모루(古牟婁)성으로 추정되기도 하였다.

고모루성은 396년(광개토태왕 6년) 광개토태왕이 백제를 공격하여 빼앗은 58성 7백여 마을중

에 포함되어 있다. 고모루성의 고모루는 크다는 의미와 마을이란 의미로 이해되지만 고산(高山), 대산(大山)으로 '모루'는 '마루'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모루라는 땅이름은 다른 곳에도 있다. 포천읍의 '원모루'나 화성시 마도면 '고모리(古毛里)'도 있으니 말이다. 그저 추정일뿐이다.

청성산성(만월성)의 다년간 연구로 포천의 고구려때 이름인 '마홀(馬忽)'이란 기와가 출토된 것으로 미루어 청성산성이나 보가산성 고모루산성도 꾸준한 연구와 고증이 필요한 시점이다.

옛 문헌인 '동국여지승람'이나 '조선보물 고적조사자료(일

제시 간행)'와 「광개토태왕비문」 「중원고구려비」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산성을 해체 발굴하고 재축성하여 실체를 규명하거나 고증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박경식교수의 연구견해는 세계의 성 모두가 포천 방면으로 진출하였고 시도했던 고구려를 견제하였던 신라의 성이었다는 견해도 주목할만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대진대학교 사학과 서병국교수가 고모루성에 관한 논문을 2002년도 모악실학회(母岳實學會)에서 실학사상 연구 제22집에 「호태왕릉비소제 연락연호 사용광정(好太王陵碑所載 永樂年號 使用匡正)」이란 제목으로 발표하였는데 고모루성이 고모리산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견해를 발표하였다고 한다.

삼국시대의 삼국의 요새로 포천을 차지하려는 수비성이 세 곳이라는 점은 한국사 연구에 자료가 가치가 있다고 본다 (포천 출신 사학자들의 향토 연구의 자료).

필자연락처 : 02)932-2434

포천의 명현탐구 (92)

류경선(柳敬先) · 1519(중종 14)~1575(선조8)



리효종 (포천향토사연구소장)

무신으로 가산면 방축리에서 출생하였다. 본관은 문화(文化)이고 본조개국공신 류만수(柳蔓洙)의 6대 손이다. 문화류씨로 처음 포천 자자리에 정착한 류중(柳宗)의 현손이고, 증 호조 참판 계윤(繼胤)의 자로 자는 흥중(興仲)이다.

경선은 문보다 무에 힘써 내금위(內禁衛)에 선보(選補)되었고, 1556년(명종8) 관사별시(觀射別試)에 급제하여 1556년(명조11) 낭장(郎將)을 거쳐 이듬해 도총부 도사(都摠副都事)에 올랐고 바로 응천현 감(熊川縣監)이 되었는데 선정 벼풀어 임기를 마치고 돌아오니 백성들이 못내 아쉬워하였다.

1562년(명종17) 제주판관(濟州判官)이 제수되고 1564년(명종19) 양산군수(梁山郡守)가 되어 6년동안 선치를 하니 백성들의 칭송이 높았다.

1569년(선조2) 제용감첨정(濟用監僉正)이 되고 이어서 한성부 서윤(漢城府庶尹)이 되었다.

1570년(선조3) 영암군수(靈巖郡守)로 부임하려 하는데 그때 경원부사(慶源府使)가 비어 있어 전조(銓曹)·관리의 전형을 알아보는 관청에

서 아뢰기를 변방 오랑캐를 상대하는 고을에서는 백성을 괴롭히기 쉬우니 청렴하고 근실

선정벼풀어 백성들 칭송 높아

가산면 금현리에 부인과 합장묘 있어

한 사람을 가려서 보내야 합니다 하였으나 일을 감내할만한 사람이 없자 경선을 천거하여 품계를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올리고 경원부사에 임명하였다.

1573년(선조6) 충청수사(忠淸水使)가 되고, 이듬해 품계가 가산대부(嘉善大夫)에 올라 회령부사(會寧府使)에 제수되었으며 이어서 북도병마절도사(北道兵馬節度使)가 되었다.

1575년(선조8) 별세하니 향년(享年) 57세이다. 병사공은 천성이 순미(醇美)하고 효우(孝友)에 독실하며 사리에 밝았다.

공직에 임해서는 삼가고 근신하며 청렴결백하여 무변(武弁)중에서 결특(傑特)한 사람이었다. 묘는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에 있다.(포천시 향토유적 제13호)

흔히 이곳 주민들에게 의해 병사공묘(兵使公墓)라 불리는 선생의 묘소는 등방이 야산에 위치해 있다. 묘는 정부인 전주이씨와 합장묘로서 봉분의 높이는 5m, 둘레는 15m이다. 묘 앞에는 묘비·상석·향로석, 그리고 좌우에는 동자석·망주석 등이 배치되어 있는데 장명등은 1981년 도난 당해 후손이 건립하였다.



▲ 류경선 묘

신명난 가락으로 보답하는 부모님 은혜

8일, 반월아트홀 대공연장에서 포천시립민속예술단 공연 펼쳐

"자녀들에게는 효의 중요성과 실천을 부모님들에게는 즐겁고 흥겨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올해 어버이날 효도 선물은 한 단계 품격을 높여 공연 티켓을 마련해보자. 포천시립민속예술단(단장 김영란)이 어버이날을 맞아 5월 8일 오후 3시 포천반월아트홀 대공연장에서 '부모님 효도공연'을 펼친다.

의 행복과 갈수록 소외되는 노년층을 위해 특별히 마련했다"며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1부 공연에서는 어버이께 보내는 영상편지 상연, 감사의 편지 낭독, 부모님 경품 추첨이 마련되며, 2부에서는 화관무, 산조합주, 대고모듬북, 판굿 등 본격적으로 포천시립민속예술단의 공연이 무대에 오른다. 포천시립민속예술단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포천시민 가족



입장료 무료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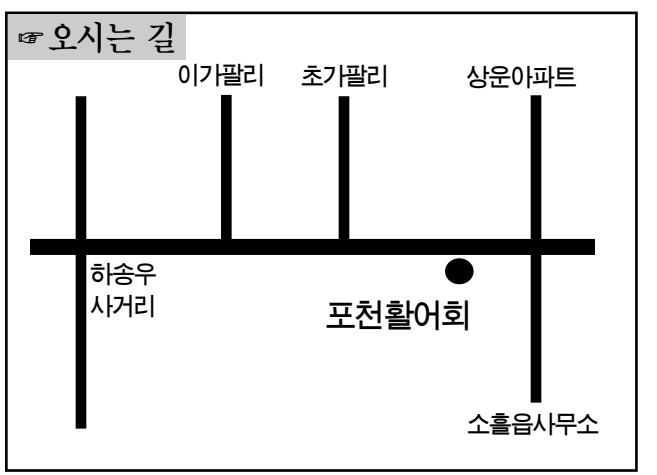
신선한 활어와 다양하고 정갈한 음식이 가득한 곳 '포천활어회'

"항상 깨끗하고, 신선한 음식, 친절과 감사하는 마음, 저희 포천활어회센터 가족의 숙원입니다"

- 광어 55,000
- 우럭 60,000
- 농어 65,000
- 도미 65,000
- 돌 돔 시가
- 도다리 시가
- 놀래미 시가
- 감성돔 시가



주소 :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448-1
전화 : 031-543-5065
대표 : 윤 보 순



단체 연회석 완비 · 넓은 주차장 보유